

편집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편집을 맡도록 방침을 바꾼 후 이번 《공간과 사회》는 두 번째로 나오는 셈이다. 당초 의도로는 편집의 다양성과 출판의 신속성을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 그렇게 운영해 오지 못한 것 같아, 이 점에 대해 우선 《공간과사회》 독자들에게 죄송스러움을 표하고 싶다.

이번 호가 늦어진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별기획>을 준비하면서 1996년 한국공간환경학회 춘계학술대회 주제였던 ‘근대성과 공간환경’ 관련 글을 부탁하고 모으는 일이 여의치 못했던 것이 주된 것이었다. 결국 이번 호의 <특별기획>은 세 편의 글로만 구성되었다. <특별기획>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동시에 이번 호의 특징을 다소 살려 내기 위해 <연구논문> <이론가 집중조명> <논단> <연구프로젝트 소개> <학위논문 소개> <이벤트 평가> 등의 다양한 구성을 시도해 보았다.

<특별기획>을 ‘근대성과 공간환경’으로 다루고자 했던 것은 계몽주의 이후 인간이 살아 온 삶의 총체성을 ‘근대성(modernity)’이라 설정해 놓고 이의 조건이자 반영으로서 ‘공간환경’을 반추해 보기 위한 것이었다. 근자에 들어 사회과학 분야이든, 인문과학 분야이든 근대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것은 21세기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에 대한 총체적 성찰의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한국공간환경학회는 국내 어느 학회보다 그 쟁점을 앞서 인식하였던 것 같다. 하지만 탈근대성의 논의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서의 근대성,’ 그리고 나아가 그것의 공간환경적 반추는 대단히 폭넓은 쟁점을 내포하고 있어 정리된 논의지형을 그렇게 쉽게 그릴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가 이번 호의 <특별기획> 준비를 어렵게 했고, 또한 최종적으로 선정된 논문의 구성이 당초 기획과 달리 다

양성의 결핍을 보이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기획>에 실린 세 편의 글은 나름대로 근대성의 쟁점을 보여주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황태연의 글은 칸트(Kant)의 순수이성비판론에 근거해 근대성이 지닌 자기비판성과 자기계몽성을 들추어 내면서 신비주의적·급진적 환경론의 극복을 주장하고 있다. 그의 인식은 근대성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을 여전히 ‘완성되어야 할 근대화 프로젝트’의 실천 에너지로 사용해야 한다는 하버마스(Habermas)적 발상과 유사하다. 다음으로 최병두의 글은 탈근대성이 포스트포디즘(post-Fordism)적 자본주의의 물적 성질을 내부화하고 있는 만큼 그에 근거한 환경론은 근대성의 한계로서 규정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안목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근대성과 탈근대성을 동시에 극복하는 환경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한다. 박형용의 글은 앞의 두 글에 의해 만들어진 논의의 흐름을 다소 벗어나 있지만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적 근대성의 식민주의적 뿌리와 자본주의적 현상태를 계보적으로 그려 내고 있어 그 시사하는 바가 결코 사소하지 않다.

<연구논문> 부분에는 네 편의 글을 실었다. 김태환의 글은 정보화의 공간적 과정을 지구화·지방화 현상과 결합하여 논의하고 그 내재적 성질과 문제점 등을 논리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노진철의 글은 울리히 벡(Ulrich Beck)의 ‘위험사회론’에 입각해 근대사회 체제의 운영과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부담’의 논리와 문제들을 논증하면서 이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학문적·실천적 감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홍기빈은 화폐를 자본주의의 화신으로 설정하고 인간과 자연, 근대사회와 공간의 관계에서 형이상학적인 것으로부터 근대 자본주의의 경험구체적인 것에 이르는 현상을 특이한 논법으로 해명하고 있다. 추재욱의 글은 ‘역(驛)’이란 공간이 지니는 미시장소적 특질과, 역사와 체제의 존재가 접합되고 연결되는 거시공간상의 위상 등을 풍부한 ‘공간문화적 상상력’으로 그려 내고 있다.

<이론가 집중조명> 부분에는 르페브르(Lefebvre)의 이론세계를 소개하는 박영민의 글을 실었다. 살아 생전 63권의 책을 썼으며, 공간이란 소재를 매개로 하여 니체, 헤겔, 맑스를 통합하는 새로운 ‘메타철학’을 정립했

던 르페브르는 ‘공간의 생산(production of space)’과 ‘공간의 실천(spatial practices)’에 대한 풍부한 이론을 후학에게 남겼다. 박영민의 글은 르페브르를 이해하기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본다.

<논단> 부분에는 두 편의 글을 실었다. 조명래의 글은 한국사회에 유포되고 있는 도시담론의 이데올로기적 지형을 그려 보면서 특히 ‘진보적 도시담론’의 위상과 그 위기적 상황을 문제제기하고 있다. 최지훈의 글은 영화 ‘초록물고기’에서 함의되는 한국 근대 장소성의 해체와 그 속에서 함께 겪는 정체성의 해체문제를 수필의 필치로 진단하고 있다.

<이벤트 평가> 부분은 1996년 서울시립대학교가 도시과학대학을 만들면서 주최한 96 서울 메트로폴리탄 포라 행사를 평가하는 장세훈의 글을 실었는데, 이 글은 공간환경 분야의 최근 학술흐름을 가름해 줄 것이다.

<연구 프로젝트 소개> 부분에서는 사단법인 한국도시연구소에서 1996년 기초 연구과제로 선정해 연구한 ‘인간주의 도시론’의 이론적 구성과 그 실천적 함의 등을 소개하고 있다. 끝으로 <학위논문>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60년대와 70년대의 무허가 불량주거지로부터 최근 재개발된 공공임대 아파트에 이르는 한국적 ‘사회주택’의 전개과정, 그리고 그 한계 등을 분석한 김수현의 박사학위논문을 소개하고 있다.

시간은 다소 지체되었을지 모르지만, 이번 호는 편집구성이 우선 다채로워졌을 뿐 아니라 공간환경과 관련된 최근 쟁점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몫을 할 것으로 믿는다. 아직도 여러 모로 부족할지 모르지만 《공간과사회》는 젊은 학도들이 만들고 있는 만큼 그 학술적·실천함의적 잠재력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의 현실적인 구현은 몇몇 편집자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독자들의 ‘깨친 책임기’와 그에 따른 공간환경적 실천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번 호에 대해서도 독자들의 진지한 읽기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 공간환경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실천이 있길 바란다.